

농촌주거의 住空間 및 住生活 변화에 관한 연구

-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ving Space and Life Pattern Transition of Rural Houses

- Focused on the Jeju Area -

최재권* / Choi, Jae-Kwe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the living space and life pattern transition which is expressed in the modernization course with the analysis of the Jeju rural houses.

For this study, I choose 72 residences examples in 8 villages as the subjects which are changed by the spontaneous purpose of the inhabitants who live in Jeju area were chosen as the subjects. As for the research method, after visiting the subject residence directly, and the field study such as the actual estimation, observation and interview were performed.

The conclusion of the study with these purpose are as follows. First, The opened spatial composition of the sitting-inclination is composed of the form which has the individual opened room and living room with the mechanism to grant the flexibility to the limited space and the structure for enduring the much-humid oceanic climate. Second, The life pattern shows the sitting life which usually uses the an-bang and living room with the seasonal change.

키워드 : 농촌주거, 제주지역, 주생활양식, 개방적 공간구조, 좌식생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주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문화적 요인 등의 제반조건에 따라 일반농민들에 의해 축적된 생활을 표현한다. 즉 농촌주거는 일정지역을 반영하는 주거문화의 체계이므로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공통된 주거문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러한 농촌주거는 지난 30년간 근대화,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방식을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거나 사회적, 문화적으로 지역 특유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유지하면서 도시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주택개량과 마을 환경조성사업으로 인해 농촌주거는 전통적인 주거방식에서 근대적인 주거로의 변화를 겪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거환경 변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양상은 근대화에 따른 일련의 필연적 진행과정이 되었다. 그러나 근대화된 생활양식은 발전과정에서 전통적 요소를 근대적 요소로 대체해 나갈 것이

라는 일반적인 믿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는 오히려 근대성과 전통성의 상호관입 관계로 파악되어진다.²⁾ 즉 근대화 과정은 근대적인 것이 전통적인 것을 대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근대적인 요소와 함께 전통적인 요소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거의 문화적 전통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과거의 주거문화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이 어떻게 오늘날까지 변화되고 지속되고 있가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농촌주거를 보는 시각에서 탈피하여 지역적 관점에서 주거가 근대화과정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전통적인 요소를 지속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특히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지역의 풍토, 역사, 문화, 그리고 생활양식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전통적 생활양식의 특성을 비교적 많이 유지해 오고 있다. 특히 마루중심의 개방적 공간구조와 좌식 중심의 생활은

1)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p.1.

2) 최재필,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1997, pp.160-163.

* 정희원, 제주관광대학 디자인계열 인테리어건축전공 조교수

그 보편적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주공간과 주생활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주생활양식의 변화성과 지속성을 파악하는데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해방이후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로 한정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이후 줄곧 격동적인 사회적, 문화적 변동을 거쳐왔다. 따라서 사회·문화의 산물인 주거도 그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된 점을 인식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 한정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사례대상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제주도 전지역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농촌의 일반적 개념에서 벗어난 목적에 의해 건설된 주택은 제외하고, 농촌마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단독주택만으로 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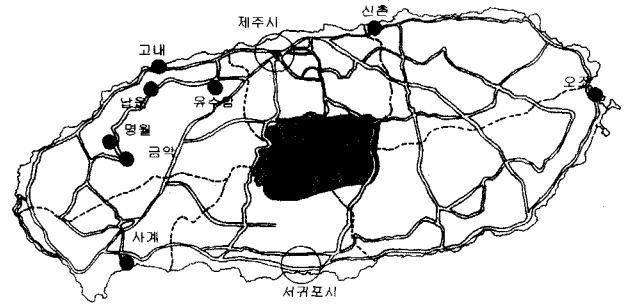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하여 한 지역의 주거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는 선행연구 고찰에서 파악된 기준을 통하여 사례지역에 나타나는 여러 형태의 농촌주거를 재래형주거, 개량형주거, 현대형주거로 분류하였다.

둘째, 현장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에 위치한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변화되고 있는 8개 마을 72개 주거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사례에 선정된 8개 마을은 행정권별 구분으로 제주시 권인 북제주 지역의 고내, 유수암, 남읍, 명월, 금악, 신촌의 6개 마을, 서귀포시 권인 남제주 지역의 사계, 오조 2개 마을로 분류된다. 또한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마을의 구분은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농촌주거의 사례는 재래형 농촌주거 23호, 개량형 농촌주거 29호, 현대형 농촌주거 20호이다. 이 사례는 가구연대 및 가족구성의 측면에서 제주지역의 보편적 농촌주거로 신뢰정도가 높은 가구이며 신뢰도의 검증을 위해 마을의 이장과 마을 원로의 협조를 받았다.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대상 주거를 직접 방문하여 실측조사, 관찰조사³⁾, 면담조사⁴⁾ 등의 '현장연구방법(field study method)⁵⁾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항목별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평균, 빈도, 백분율로 단순 통계 처리하여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 분석지역 및 사례주거

군	분석지역		마을구분	사례의 주거형			조사호수
	읍·면	리		재래형	개량형	현대형	
북제주군	애월읍	고내리	해안	3	5	3	11
		유수암리	중산간	1	2	4	7
		남읍리	중산간	2	4	3	9
	한림읍	명월리	중산간	3	9	1	13
		금악리	중산간	4		2	6
		조천읍	신촌리	해안	3	3	2
남제주군	안덕면	사계리	해안	3	1	2	5
	성산읍	오조리	해안	4	6	4	14
합계				23	29	20	72



<그림 1> 사례마을의 위치

1.3. 농촌주거의 용어정의 및 분류

건축분야에 언급하는 농촌주거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 즉 농촌주택, 농가주택, 농가, 농촌주거 등 용어가 구체적인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다. 농촌주택은 농촌이라는 지역, 환경을 포함하는 용어이며, 농가주택과 농가는 농업이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보다 적당한 용어이다. 농촌주거는 농촌에 있는 주택의 장소뿐 아니라 특정한 지리적 공간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Saegert, 1985)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사회적 요소와 물리적 요소가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생활공간(이정근, 1986)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촌주거의 물리적 측면과 생활적 측면을 고려한 거주자 삶을 파악하는 목적의 연구로 주제의 특성상 농촌주거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에 있는 농촌주거의 형태는 구조, 평면형태, 입면 형태의 요소들이 상호 관련되어 다양성을 띄고 있다. 특히 과거에 형성되어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자연발생적인 마을은 그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매우 다양한 주거형태가 분포하고 있었다.

기존연구의 농촌주거 분류는 그 기준이나 용어가 연구자마다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존 연구의 농촌주거 분류기준을 대별해보면 건축시기, 건축구조, 평면형태, 외관형태로 나누어진다. 건축시기는 1970년초의 새마을운동을 기점으로 새마을운동이전 전통적인 골격을 유지하는 재래형주거와 새마을운동 이후 근대식개념을 도입한 개량형주거로 분류한다. 현대형 농촌주택은 1986년을 기점으로 실적위주의 표준주택건설을 지

3)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4)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9.

5)Lee Hee-Bong, Space, Form and Subculture : The use of a Field Study Method, Ph. D. Dissertation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향하면서 거주자의 요구를 보다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개념에 의해서 나타난 농촌주거이다. 건축구조는 전통적인 목구조와 1970년대 초 새마을운동 이후 시멘트 블록이 대량으로 공급되면서 블록조가 나타나고 1980년대부터 시멘트 벽돌조가 등장하였다. 평면형태에서 전통주거는 홑집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새마을 운동 이후에는 겹집형태로 변화하였다. 외관형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붕으로 전통적인 초가에서 새마을 운동 이후 슬래트지붕, 기와지붕, 슬라브지붕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나라 농촌주거는 재래형 농촌주거, 새마을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로 형태분류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존연구의 분류 기준 중 제주지역 농촌주거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평면형태에 따른 분류기준을 제외한 건축시기, 건축구조, 외관형태로 분류되며 그 결과, 본 사례지역 농촌주거는 새마을형 농촌주거를 제외한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로 분류되었다. 이 상에서 분류된 농촌주거는 시기적으로 재래형 농촌주거, 개량형 농촌주거, 현대형 농촌주거의 순으로 연결되며 분명한 시간적 흐름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어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통시적 변화 과정단계를 나타내고 있다.

2. 농촌주거의 주공간 분석

본 장에서는 농촌주거의 주공간을 주요공간별 개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루, 안방, 작은방, 현관은 개방방식에 따른 개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엌, 다용도실, 욕실 및 화장실은 배치관계에 따른 개방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1. 마루(거실)

마루의 개방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후 개방된 형태를 분류하면, 1) 마루의 전·후면이 개방된 완전개방형, 2) 후면에 실이 있지만 미서기문이 설치되어 문을 열었을 때 개방되는 부분개방형, 3) 마루 후면에 실이 배치되어 일부 개방된 반개방형, 4) 마루 후면에 실이 배치되어 완전히 막히게 된 폐쇄형을 나누어진다.

주거형태별 마루의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완전개방형이 100%(23/23)이고 개량형주거는 완전개방형 62.1%(18/29), 부분개방형 37.9%(11/29)로 나타났으며, 현대형주거는 부분개방형 45%(9/20), 완전개방형 25%(5/20), 반개방형 20%(4/20), 폐쇄형 10%(2/20)로 나타났다. 사례의 마루는 완전 개방형의 분포가 높고 나타나고 있으며, 부분개방, 반개방으로 점차 후면이 폐쇄적 형태로 변화되고 있었다. 반개방형과 폐쇄형은 부엌이나 방들이 주거후면에 분화된 것이다. 이것은 마루가 건축재료 및 설비의 발달로 인해 내실화되고, 바닥 난방이 이루어짐으로

써 통로의 기능 뿐 아니라 가족실 기능을 갖는 거실의 성격으로 변화하는 것에 기인한다. 즉 중앙에 배치된 거실은 공동생활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각 실과의 상관성이 큰 것으로 후면을 완전히 폐쇄하는 경우는 적었으며 부분개방, 반개방 형태가 나타나 전통 상방(마루)의 개방적 의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마루의 배치형태

주거형태 \ 마루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반개방형	폐쇄형
형태				
재래형	23			
개량형	18	11		
현대형	5	9	4	2

《범례》 ▲ : 출입구, L : 마루(거실)

2.2. 안방 및 작은방

안방의 개실화 여부를 알아내기 위하여 출입문형식을 파악하였다. 출입문형식을 보면, 재래형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100%(23/2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개량형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93.1%(27/29)로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의 안방은 마루와 개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형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45%(9/20)를 나타내고 있어 현대형주거의 안방은 공적공간에서 부분적인 사적공간으로의 개실화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안방을 제외한 작은방의 출입문형식을 파악한 결과, 재래형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57.8%(26/45), 개량형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57.4%(39/68)로 여담이문과 비슷한 분포가 나타났으나, 현대형주거의 미서기문 설치는 48.9%(22/45)로 안방과는 다르게 미서기문과 여담이문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작은방에 여담이문 설치의 분포가 높은 것은 재래형주거의 큰구들(안방) 후면에 전통적으로 고팡⁶⁾이 위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근대화 이후 개량되면서 침실로 용도 변경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창고용도의 융통적 사용기를 위해 여담이문을 설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2.3. 부엌

부엌의 배치는 마루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전면배치형, 후면배치형, 측면배치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부엌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측면배치형 52.2%(12/23), 후면배치형 39.1%(9/23)로 나




6)곡류(보리, 콩, 조등)유채등을 담은 항아리를 넣어두는 방(고방, 케팡, 안팡 이라고도 함)

7)주민과 면담결과 창고방이라는 호칭으로 보아 창고의 기능을 하는 고팡 의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타났으며, 개량형주거는 후면배치형 62.1%(18/29), 측면배치형 34.5%(10/29)로 나타났다. 현대형주거는 후면배치가 90%(18/20)로 대다수를 나타내고 있었다.

분석결과, 사례의 대부분에서는 후면배치형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근대화에 따른 취사난방검용이 개량형주거 이후에 나타나게 되어 부엌이 안방의 후면에 배치된 것이다. 이 후면배치형은 부엌이 거실의 후면에 배치되어 주거 전면에서 보이는 시선을 차단하며 가사 작업 시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마당과의 관계보다 마루와의 개방적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것에서 사례 수가 증가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 3> 부엌의 배치형태

주거형	부엌	전면배치형	후면배치형	측면배치형
형태				
재래형		2	9	12
개량형		1	18	10
현대형			18	2

<범례> ▲ : 출입구, L : 마루(거실), K : 부엌

2.4. 다용도실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특징 중 하나는 다용도실 기능의 물부엌⁸⁾을 들 수 있는데, 도시주거의 다용도실⁹⁾과는 다른 개념으로 근대화 이후에 주생활양식의 변화에 의해 나타난 공간이다. 사례조사결과, 다용도실의 주거형별 유무는 재래형주거 56.2%(15/23), 개량형주거 79.3%(23/29), 현대형주거 65%(13/20)로 나타나 다용도실이 제주지역 농촌주거에 일반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용도실의 배치형태는 부엌과의 인접관계 및 동선의 연결에 따라 일체형, 접속형, 별도형, 부속형으로 분류된다. 일체형의 경우 부엌측면에 배치되어 다용도실을 통해서 부엌으로 진입하는 유형이다. 접속형은 부엌측면에 배치되기는 하나 부엌과 다용도실이 직접연결이 되지 않는 유형이다. 별도형은 부엌과 분리되어 배치되고 외부공간을 통해서 부엌과 연결된다. 부속형은 부엌과 하나의 건물로 통합되어 부엌을 통하여 다용도실로 연결된다.

재래형주거는 일체형 40%(6/15), 접속형 40%(6/15)이 분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주거를 증·개축하는 방법으로 외부에서 다용도실을 거쳐서 부엌으로 진입하거나 부엌 측면에 출입구를 분리하여 부속시키는 배치를 나타내었다.

8) 다용도실과 유사하나 제주도에서는 매우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한다. 물부엌의 용어는 부엌과 같으나 바닥이 타일등으로 되어 있어 바닥에 물을 마음대로 뿌릴 수 있다고 하여 물부엌이라 부른다. 이 용어의 사용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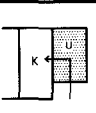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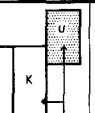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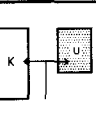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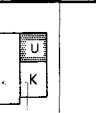
9) 다용도실은 계획각론에서는 세탁, 다림질, 재봉일을 하는 일명 가사실이라고 하며 독립된 방을 만드는 경우와 발코니와 주방사이의 공간을 이용하여 세탁, 걸레씻기 및 잡품창고를 겸하는 경우 다용도실이라 부른다. 이광로의, 건축계획, 문운당, 1993, p.42, 재인용.

개량형주거는 부속형 55%(11/20)로 부엌이 다용도실과 함께 기존 위치에서 외부로 증축됨에 따라 부엌과 일체하는 방법으로 다용도실을 부엌후면에 위치시켜 다용도실이 내부 욕실을 겸하는 기능을 점차 나타내고 있었다.

현대형주거는 일체형 92.3%(12/13)으로 부엌의 측면에 배치하고 욕실의 기능보다는 가사보조의 다용도의 기능을 나타내고 있었다. 현대형주거의 다용도실은 농촌주택의 신고 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벽체를 구획하지 않고 대부분 준공검사후¹⁰⁾ 증축하는 방법을 쓰고 있었다.

다용도실은 대부분 마당 방향으로 개방되고, 개방과 통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미서기문으로 마당에서 직접 다용도실로 출입하고 다시 부엌으로 연결되는 내·외 개방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주거에서 다용도실은 의례행사시 음식의 조리 등 입식부엌에서 행하기 어려운 가사보조 행위와 가사용품 보관을 위한 공간으로 일상의 사용보다 경조사를 우선적으로 대비하는 비일상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었다.

<표 4> 다용도실의 배치형태

주거형	다용도실	일체형	접속형	별도형	부속형	무
형태						
재래형		6	6	2	1	8
개량형		5	4	3	11	6
현대형		12		1		7

<범례> K : 부엌, U : 다용도실

2.5. 욕실 및 화장실

주거형별 화장실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외부배치 95.7%(22/23), 실내·외배치 4.4%(1/23)로 나타났고, 개량형주거는 외부배치 96.6%(28/29), 실내·외배치 3.5%(1/29)이며, 현대형주거 외부배치 35%(7/20), 실내·외배치 40%(8/20), 실내만 배치하는 경우 25%(5/2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는 대부분 실외에만 화장실을 배치하고 있는데 반해, 현대형주거는 실내화되고 있으나, 내·외부에 동시에 배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아직까지 화장실에 대한 전통적인 의식과 경조사 시 손님사용을 고려하고, 농작업 시 주거내부에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진입이 편리한 외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2.6. 현관

현관의 배치형태는 거실과 마당의 개방적 관계에 따라 1) 마

10) 현대형주거는 대부분 농촌개량사업 융자금의 혜택으로 건축을 하는데 평수의 조건이 국민주택규모로 제한되어 있어 건축계획 단계에서는 제외하고 준공 검사 후 다용도실을 증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루전면에 개방된 현관을 만드는 내부노출형, 2) 마루 내부에 현관이 개별공간으로 분리된 내부구획형, 3) 현관이 마루에서 분리되어 외부로 확장된 외부돌출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거형별 현관 배치형태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낭간¹¹⁾의 형태에서 중·개축에 의해 낭간 전면에 미서기문을 달아 현관을 만드는 내부노출형이 100%(23/23)를 차지하고 있었다. 개량형주거는 내부노출형 86.2%(25/29)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내부구획형이 13.8%(4/29)로 나타났다. 현대형주거는 내부노출형 35%(7/20), 내부구획형 30%(6/20), 외부돌출형 35%(7/20)로 점차 현관에 의해 마당과 주거내부공간의 연결관계가 분리되고 있었다. 현관문의 형식은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는 마루전면에 미서기문을 달아 마당에서 현관을 통해 바로 마루로 진입할 수 있는 개방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었다. 현대형주거는 현관이 별도의 실로 배치되고 있었으나 비교적 공간분화가 덜 진행된 개방형태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가능하면 마당과의 관계를 개방적으로 유지하여 주거내부의 통풍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현관의 협소함보다 통행이 원활함을 선호하여 개방적 형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표 5> 현관의 배치형태

주거형	현관	내부노출형	내부구획형	외부돌출형
형태				
재래형		23		
개량형		24	4	
현대형		7	6	7

<범례> ▲ : 출입구, L : 마루(거실), E : 현관

3. 농촌주거의 주생활 분석

본 장에서는 거주자의 주생활양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생활행위 중 식사, 단란, 접객, 취침을 중심으로 생활행위와 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주요공간별 생활제의 배치 및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3.1. 주생활 행위실태

(1) 식사

주거형별 식사행위장소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30.4%(7/23), 방 17.4%(4/23), 부엌 13.0%(3/23), 개량형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41.4%(12/20), 찻방¹²⁾ 21.4%(7/29), 현대형

11) 뒷마루 또는 낭간으로 상방(마루)나 구들(방) 바깥 옆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널을 깔아 놓은 곳
12) 제주도 주택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공간으로 마루가 설치된 전형적 식사공간이다. 이것은 접객공간인 상방과 정지공간을 잇는 위치에 놓인

주거는 식당 50%(10/2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의 식사 행위장소는 계절변화에 따라 방과 마루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현대형주거는 계절적 행위의 이동은 감소하고 점차 식당에서의 식사행위가 증가되고 있었다.

<표 6> 식사

주거형	행위장소	방	마루(거실)	식당(찻방)	부엌	방(M)+마루(S)	부엌(M)	방(M)+부엌(S)	계
재래형		4	3	2	3	7	2		23
개량형		1	2	7	4	12	3		29
현대형			3	10		3	1	3	20

<범례> M : 주로 사용, S : 보조로 사용

(2) 단란

주거형별 단란행위장소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52.2%(12/23), 마루 34.8%(8/23), 개량형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65.5%(19/29), 마루 20.7%(6/29), 현대형주거는 마루 45%(9/20), 안방과 마루 혼용이 45%(9/20)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단란장소는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는 방과 마루에서 계절적 변화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형주거는 주로 거실에서 이루어졌으나 안방과 거실이 겸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표 7> 단란

주거형	행위장소	방	마루(거실)	식당(찻방)	부엌	방(M)+마루(S)	계
재래형		3	8			12	23
개량형		1	6	1	2	19	29
현대형		2	9			9	20

<범례> M : 주로 사용, S : 보조로 사용

(3) 접객

주거형별 접객행위장소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방과 마루 겸용 56.5%(13/23), 마루 26.1%(6/23), 개량형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65.5%(19/29), 방 26.1%(6/29), 현대형주거는 방과 마루 혼용 5.5%(11/20), 거실 30%(6/20)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접객장소는 계절적 변화에 의해 방과 마루가 혼용되고 있으며 현대형주거에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아 안방의 개실화가 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8> 접객

주거형	행위장소	방	마루(거실)	식당(찻방)	부엌	방(M)+마루(S)	계
재래형		4	6			13	23
개량형		6	2	1	1	19	29
현대형		3	6			11	20

<범례> M : 주로 사용, S : 보조로 사용

다. 주부의 가사노동을 절감함과 동시에 식사공간의 위생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생활공간인 상방으로부터 공간분화를 한 것이다. 찻방의 존재는 근대적 공간분화라는 점에서 제주도 주택을 높이 평가해 주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식사, 단란, 집객의 생활행위와 장소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안방과 마루의 전용화(轉用化) 경향을 볼 수 있어 공간별 기능 분화가 덜 이루어지진 좌식의 주생활양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취침

취침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방(큰방들) 사용자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주거형별 분석결과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빈방으로 있는 경우가 34.8%(8/23), 부부취침 21.7%(5/23), 자녀취침 21.7%(5/23)로 나타나 안방이 부부공간이 아닌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부부침실이 안방을 고수하기보다는 취사난방 겸용 시기에 부엌에 접해있는 작은방을 안방으로 사용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량형주거는 빈방으로 있는 경우가 31%(10/29)이고 부부취침인 경우가 48.3%(14/29)로 부엌에 인접한 방이 안방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현대형주거는 안방의 70%(14/20)가 부부침실로 전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재래형주거나 개량형주거에서 안방이 부부침실로 전용(專用)되지 않고 난방이 이루어진 작은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현대형주거와 같이 가장 큰방을 안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방이 가족의 공적생활의 수용을 위한 생활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공간의 전용성(轉用性)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9> 안방사용형태

주거형	사용자	조부모	부부	손자녀	조부모+손자녀	부모+손자녀	빈방	계
재래형		1	5	5	1	3	8	23
개량형			14	4		1	10	29
현대형		2	14			3	1	20

3.2. 주생활재 사용실태

생활재 사용을 파악하는 것은 거주자의 주생활양식¹³⁾을 파악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본 절에서는 공간별 생활재의 배치 및 사용실태를 분석하였다.

(1) 마루(거실)

13) 주생활양식은 크게보면 입식과 좌식생활양식으로 분류되는 기거양식에 속하는 것으로 기거양식은 기거·행동에 관한 것으로 바닥에 앉는 생활인가 의자에 앉는 생활인가의 문제이다. 住田昌二(1984)는 앉고 서는 동작(기거동작)의 기본적인 동작이 기거양식으로 좌식은 바닥에 직접 앉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는 동작양식이며 입식(의자식)은 의자와 소파, 침대등의 가구를 지지하여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일련의 동작양식이라고 정의 하였다. 澤田知子(1992)도 이러한 관점에서 기거란 앉고 서는 행동인 기거동작, 또는 일상생활의 의미로 정의하고 좌식 기거양식은 바닥면을 신체 지지구로 하는 기거행동의 행동양식이라 정의하였다. 그러므로 생활행위시 자세는 인간의 행동을 시간적인 관점에서 본 신체의 형태이며 가구는 기거양식을 수행하기 위한 물리적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다. 기거양식은 일반적으로 좌식과 입식으로 분류되고 있다. 장상우,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논문, 1996. pp.7-8, 재인용.

마루의 기거양식을 나타내는 소파배치는 재래형주거 13%(3/23), 개량형주거 24.1%(7/29), 현대형주거 30%(6/20)로 주거형별 소파 보유수가 서서히 증가하지만 대체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현대형주거의 공간구성은 거실의 배치로 입식 위주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소파 등의 배치는 일반화되어 있질 않았으며 소파가 배치된 경우에도 소파 사용의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주거의 외형적 근대화에 비해 생활의 입식화는 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소파가 배치된 사례에서도 의례적인 집객에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평소에는 입식화된 거실공간에서 좌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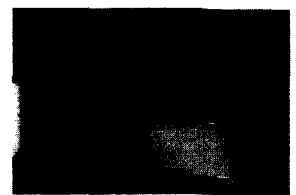
부부침실은 주로 안방이 사용되고 주생활재는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에서는 안방에 가구가 적게 배치되는데, 이것은 장롱 등의 수납가구를 안방에 두지 않고 작은방이나 빈방으로 이동하거나 굴목¹⁴⁾ 상부 벽장을 붙박이장으로 만들어 바닥면적을 최대한 넓게 사용하려는 있는 것에 기인하며, 현대형주거는 장롱을 안방에 배치하여 집안의 상징성을 보이고 있었다.

TV보유 상태를 보면, 재래형주거는 부부침실 73.9%(17/23), 자녀침실 30.4%(7/23), 마루 10%(2/20), 개량형주거는 부부침실 79.3%(23/29), 자녀침실 30.4%(8/23), 마루 30.4%(3/29), 현대형주거는 부부침실 60%(12/20), 자녀침실 17.2%(5/29), 거실 30%(6/20)로 나타났다. 단란의 수단으로 TV가 각 실로 보급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부침실에서의 보유수가 높게 나타나 단란행위가 부부침실인 안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부부침실의 침대보유는 재래형주거 13%(3/23), 개량형주거 10.3%(3/29), 현대형주거 5%(1/20)로 모두에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안방에서의 취침형태는 좌식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이것은 안방이 단란, 집객, 식사 등 다용도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통적인 관습이 지속되는 것으로 침대 등의 배치를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녀침실의 침대 보유는 재래형주거 26.1%(6/23), 개량형주거 27.6%(8/29), 현대형주거 30%(6/20)로 나타나고 있으며, 입식책상과 책장 등이 대부분 배치됨으로 부부침실에 비해 입식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부부침실과 자녀침실의 입식화 정도는 자녀침실은 비교적 빠른 입식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부부침실인 안방은 여전히 좌식지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소파와 좌식탁자 혼용



<그림 3> 굴목위 붙박이장 설치

14) 구들방에 불을 떼게 만드는 아궁이 및 아궁이 바깥부분

(3) 부엌 및 식당(책방)

가사작업의 입식화를 나타내는 입식작업대의 도입은 재래형 주거 91.3%(21/23), 개량형주거 100%(29/29), 현대형주거 95%(19/20)로 가장 빠른 입식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상 가사행위가 아닌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경조사 시 조리 등의 일상적 가사행위는 입식작업대와 바닥면을 같이 사용하는 혼용식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상적인 조리와는 다르게 넓은 면적이 필요함으로 작업대의 수용이 불가능하여 좌식과 입식이 혼용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사의 입식화를 위해 식탁유무를 파악한 결과, 재래형주거 17.4%(4/23), 개량형주거 27.6%(8/29), 현대형주거 40%(8/20)로 부엌이 점차 식당의 기능을 갖춘 DK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식사를 위한 기거양식은 식탁과 함께 밥상도 겸하여 사용하는 혼용식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 일상시의 식사는 여전히 좌식의 밥상 사용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것은 주생활이 공간한계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메카니즘으로 융통적 공간사용을 위한 좌식의 주생활양식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 식탁과 밥상의 혼용



<그림 5> 경조사 시 부엌 바닥사용

(4) 다용도실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의 다용도실은 가사 보조공간뿐 아니라 위생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 위생행위가 나타나는 복합적 생활공간이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다용도실은 일상적인 세탁과 가사, 세면이나 목욕 등의 행위가 나타났다. 일상적인 가사행위는 주로 채소 다듬기, 씻기 행위가 나타나는 데

바닥에 꾸그리고 앉은 좌식을 나타내고 세탁행위는 세탁기와 손빨래가 혼용되고 있었다. 또한 농작업 후 탈의, 세면과 여름에 목욕 등이 좌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용도실의 전반적인 주생활양식은 모든 주거형에서 좌식 지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근대화에 따른 생활양식이 점차 입식화 되더라도 우리의 생활문화는 급속하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전통적 생활양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으로 좌식의 다용도실이 필요했던 것으로 해석이 된다.

(5) 욕실 및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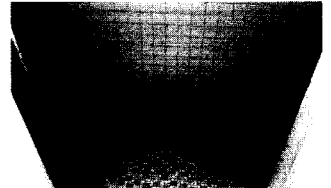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에서는 세면대와 욕조가 다용도실에 설치되고 있어, 다용도실에서 위생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대형주거는 이러한 위생행위가 욕실로 이동되어

나타나고 있지만, 입식 시설물 배치에 비해 생활행위의 입식 경향은 매우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세면대는 설치되었으나 세면대 밑 부분에 수도를 설치하여 세수대야를 이용한 좌식행위를 하고, 욕조는 목욕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릇의 보관 및 빨래, 배추 절임 등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이고 있었다.

화장실의 입식화에 따른 좌변기설치는 재래형주거 4.3%(1/23), 개량형주거 3.5%(1/29), 현대형주거 75%(15/20)로 나타나고 있어 점차 실내에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가사보조의 다용도실



<그림 7> 좌식의 위생행위

이상의 분석결과, 농촌주거의 공간별 기거양식은 다용도실 <안방<작은방<마루<욕실 및 화장실<부엌 순으로 입식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거형별 기거양식은 재래형주거<개량형주거<현대형주거 순으로 입식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진행과정은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농촌주거공간에 대한 물리적 입식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거주자 생활의 입식화는 매우 서서히 진행되는 것으로 실제의 생활 속에서는 좌식 생활관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분석의 종합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주공간 분석에서 마루는 재래형주거가 전후가 완전히 개방된 형태가 나타나고, 개량형주거와 현대형주거는 후면이 부분 개방형태, 반 개방형태가 나타나 마루의 개방의식은 지속되고 있었다. 안방의 출입문 형태는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가 대부분 미서기이문을 설치하여 개방성을 나타내고, 현대형주거는 여닫이문을 설치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미서기문 설치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작은방은 재래형주거, 개량형주거, 현대형주거 모두에서 미서기문과 여닫이문이 혼용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엌의 배치에서 재래형주거는 전면배치형과 측면배치형이 나타나고 있으나 개량형주거, 현대형주거는 후면배치형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어 취사난방에 따른 부엌과 안방의 인접과 마루와 부엌이 연결되어 개방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용도실에서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는 중·개축에 의해 부엌 측면에 접속되거나 부속되는 형태를 만들고 있었으나 현대형주

거는 부엌의 측면에 일체시켜 다용도실이 부엌과 직접 연결되는 내·외 개방적 형태를 나타내었다. 욕실 및 화장실에서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는 대부분 실외에 배치되고 있으나 현대형주거는 설비의 발달로 실내에 배치되고 있으나 농촌 특성상 실·내외에 배치하는 경우도 높게 나타났다.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에서 현관은 증·개축에 의해 난간진면에 현관을 만들고 내부노출형을 취하고 있었다. 현대형주거에서는 점차 내부구획형과 외부노출형이 증가하고 있으나 개방적 형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주생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주생활행위와 생활재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생활행위 실태에서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의 식사행위는 안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여름에 마루에서 보조적으로 이루어졌으나 현대형주거는 점차 식당에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의 단란행위는 안방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여름에 마루에서 보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대형주거는 주로 거실에서 이루어졌으나 안방과 거실을 겸용하는 경우도 많이 나타났다. 접객행위는 재래형주거, 개량형주거, 현대형주거 모두에서 안방을 주로 사용하고 마루를 보조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점차 마루에서 행위가 증가하고 있었다. 취침행위의 파악을 위해 안방사용자를 파악한 결과, 재래형주거는 빈방으로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침실, 자녀침실 순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다. 개량형주거는 부부침실과 빈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나타났으나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어느 정도 지속되고 있었다. 현대형주거는 부부침실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둘째, 주생활재사용 실태에서 마루는 모든 유형에서 소파배치가 적은 좌식으로 나타났으며 부부침실은 모든 주거형에서 침대가 적은 좌식을 나타낸 반면, 자녀침실은 책상등이 배치되어 입식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부엌의 가사작업은 모든 주거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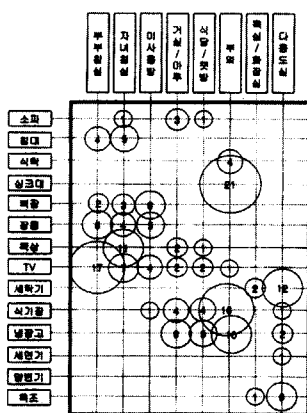
에서 입식지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식당에서의 식사는 현대형주거에서만 입식경향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용도실은 모든 주거형에서 좌식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욕실 및 화장실에서 재래형주거와 개량형주거는 재래식을 유지하고 현대형주거는 입식경향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5.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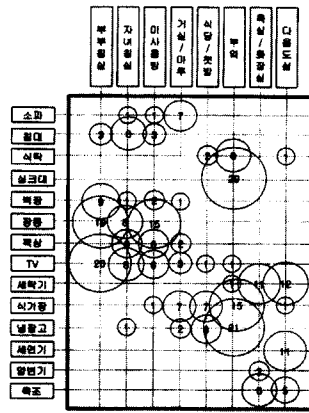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주공간과 주생활 변화의 파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주지역 농촌주거의 주생활양식은 개방적 공간구조와 좌식지향의 주생활양식이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농촌주거의 공간구조는 제주지역 민가의 전통적 공간구성인 3칸형을 기본으로 주거의 중앙에 마루가 전후 개방된 배치와 마루와 방, 각실과 외부공간이 상호 개방된 형태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평면형태는 고온다습한 해양성기후를 견디기 위한 구조와 마루를 중심으로 각 실의 개방성을 부여하여 생활공간의 한정성을 극복하고 공간의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생활과 공간의 적응 메카니즘의 한 형태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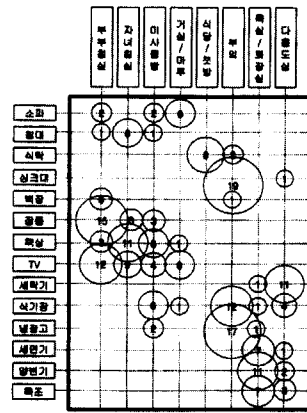
또한 농촌주거가 근대화되면서 주공간의 각 실이 기능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식사, 단란, 접객의 주생활행위가 계절에 따라 마루와 안방에서 중복되는 공간분화가 덜 이루어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주생활재의 이용에서 부엌 가사작업공간의 입식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며 마루와 안방의 생활양식은 입식보다는 좌식 지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서구적 근대화의 측면에서 공간의 기능분화 등 물리적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생활양식에서도 서구화된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제주지역 농촌주거는 좌식 지향의 생활관습에 따른 공간의 전용성(轉用性), 가변성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역적 구분이 엄격하지 않은 융통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8〉 재래형가구 현황



〈그림 9〉 개량형가구 현황



〈그림 10〉 현대형가구 현황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1991.
2. 아모스 라포포트, 이규목 역, 주거 형태와 문화, 열화당, 1995.
3. 장보웅, 한국의 민가연구, 보선재, 1992.
4. 최재필, 우리나라 근대 주거의 변화, 주거론, 대한건축학회, 1997.
5. 홍동식, 농촌사회학의 이해, 법문사, 1996.
6. Spradley James P., 이희봉 역,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6.
7. Spradley James P., The Ethnographic Interview.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79.
8. 김향원,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9.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박사논문, 1992.
10. 엄인섭, 농촌주거공간 이용실태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계명대 박사논문, 1991.
11. 임창복, 한국도시 단독주택의 유형적 지속성과 변용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9.
12. 장상옥, 아파트 거주자의 기거양식과 만족도, 한양대 박사논문, 1996.
13. 최장순, 영동지역 농촌주택의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시립대 박사논문, 2000.
14. Lee, Hee-Bong, Space, Form and Subculture : The use of a Field Study Method, Ph. D. Dissertation in Architecture University of Pennsylvania, 1985.
15. 김성우 외, 공간사용을 중심으로 본 농촌주택의 근대적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권, 6호, 1996. 6.
16. 이상철, 제주도의 개발과 사회문화 변동, 탐라문화, 제17호, 1997.
17. 제주도, 제주의 민속 IV, 제주도, 1995.

<접수 : 2002. 8. 31>